보도자료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https://kihasa.re.kr

배포일시	2026년 1월 5일(월)		
배포부서	대외홍보팀장	이혜선	☎ 044-287-8345
	대외홍보팀	정지혜 행정원	☎ 044-287-8015
상세문의	학술정보팀장	강소선	☎ 044-287-8229
	학술정보팀	김정은 전문원	☎ 044-287-8364
보도일시	즉시		
매 수	총 19매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지 『보건사회연구』 제45권 제4호 발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 등재 학술지인 『보건사회연구』 제45권 제4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29편의 논문과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인 주은선 교수(경기대)의 논설이 실렸다.

Editorial

고립을 넘어 연대와 연결로

2025년 『보건사회연구』를 돌아보다

▣ 주요내용

2025년 『보건사회연구』에 게재된 연구 주제 중 가장 도드라진 것은 '고립'에 대한 관심이었다. 1인 가구는 다양한 취약성의 원천으로 여겨져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었으며, 청년에 관한 연구 중 상당수도 은둔·고립 청년 등 다양한 상황에 처한 이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고립'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리 학술지에 실린 연구물들은 고립과 결핍의 복잡한 메커니즘에 천착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연대와 상호돌봄이 이루어지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지역에 대한 관심 역시 올해의 특징이다. 많은 이들이 고립을 넘어서는 연결의 단위로 지역을 상상하며 지역의 역할을 기대하지만, 연구자들의 예민한 감각은 인구감소 시대 지역 간의 벌어지고 있는 격차를 감지하고 이를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지역 단위의 조정만큼이나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할 인프라와 재정 등에서의 지역 간 조정 역시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건사회연구』의 논문들을 살펴보면 연구자들은 세계를 인식하는 '감각의 연대'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대가 더 나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사회를 향한 바람에 기반한 것이라 믿기에 감사함과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앞으로도 우리 학술지에 실린 연구들이 고립과 불안의 변화에 맞서 싸우며 더 나은 길을 찾는 데 기여하길 기대해 본다.

『보건사회연구』 제45권 제4호 게재논문 목록

순서	논문제목	저자 (* : 교신저자)
1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과 현실 및 사이버 비행에 대한 성별 다집단 ARCL 분석	이종형(버지니아커먼웰스대학교) 이준배(충북대학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 현실 및 사이버비행,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요즘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집중력 감소와 현실감 상실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의존이 현실에서의 문제 행동이나 사이버 공간의 비행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남학생은 사이버 비행이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 비행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순서	논문제목	저자 (* : 교신저자)
	확인되었다. 반면 여학생은 스마트폰 의존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사이버 비행을 강화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성별에 따라 다른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청소년 비행 예방은 남학생은 디지털 시민성 교육, 여학생은 정서 지원과 상담 개입 등 맞춤형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국내 교육·상담 현장에 장기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2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이 간호사 이·퇴직률에 미친 영향: 고용보험DB를 중심으로	구자현(한국노동연구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간호사 교대제, 이직률, 퇴직률, 고용보험DB, 이중차분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우리나라 병원 간호사의 이직률은 평균 19.7%로 매우 높고, 특히 20대 신규 간호사의 2년 이내 이직률이 30%를 넘는다. 불규칙한 교대근무와 과중한 업무는 이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교대제 개선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실제로 간호사의 이직과 퇴직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를 행정자료(고용보험DB)를 이용해 인과적으로 분석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의 간호사 이·퇴직률은 비참여 병원보다 평균 0.8%p 낮았고, 3년 이상 근속률은 2.6%p 높았다. 특히 20·30대 간호사와 경력 6년 미만의 초기 경력 간호사에게서 효과가 뚜렷했다. 또한 사업 시행 1.5년 이후부터 효과가 점차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교대제 개선과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가 근무환경 개선과 이직률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간호사 교대제 개선은 간호사의 인력 유지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단순한 기간 연장에 그치지 않고 본사업으로의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적 개선이 모색되어야 한다.	
3	연명의료 중단 및 보류 의사결정 주체별 특성과 생애말기 의료비의 관계	임민경(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연명의료 중단 및 보류, 의사결정 주체, 생애말기 의료비, 자기결정권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연명의료결정제도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임종과정에서 환자가 아닌 가족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기존 연구들에서는 '의사결정 주체'에 따른 특성이나 치료강도, 의료비 차이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연명의료 중단 및 보류 의사결정의 주체별 특성과 의료비 분석을 통해 치료강도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순서	논문제목	저자 (* : 교신저자)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의사결정 주체(환자 본인 vs. 가족)에 따라 인구학적 특성, 생애말기 의료비, 의료이용 양상에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환자 본인이 결정한 경우,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군에서 고소득 비율이 높았고, 가족이 결정한 경우보다 생애말기 의료비가 낮았으나 호스피스 이용률은 더 높았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생애말기 연명의료 중단 및 보류 결정 과정에서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완·강화할 필요가 있다.	
4	영국 성인 돌봄의 금융화 정책과 그 결과: 요양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전용호(인천대학교) 이미진(건국대학교)* 남현주(가천대학교) 권현정(영산대학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성인 돌봄, 장기요양, 금융화, 사모펀드, 돌봄의 계층화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최근 한국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영역에 사모 펀드 등 금융자본이 새로운 공급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돌봄 영역의 금융화가 먼저 진행된 영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그 추진 방식과 결과를 살펴보고,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영국 정부의 금융화 정책 기조 아래, 성인 돌봄 영역에서는 금융자본이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해 사업의 규모화와 체인화를 추진하며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자본은 서비스 품질보다는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 창출 에 집중하면서, 재정 구조의 불안정과 돌봄 서비스의 품질 저하, 돌봄의 계층화, 대규모 파산 및 학대 사건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자본의 로비 등 정치적 영향력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비해 영국 정부의 감시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한국에서도 돌봄의 금융화 현황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영국의 선행 경험을 참고하여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	유튜브를 통해 자신을 드러낸 은둔·고립 청년의 경험	강희주(아동권리보장원) 강현아(숙명여자대학교) 안선경(이화여자대학교) 양유진(숙명여자대학교)

<table>
<tr><th>순서</th><th>논문제목</th><th>저자 (* : 교신저자)</th></tr>
<tr><td></td><td></td><td>이민지(숙명여자대학교)
정익중(이화여자대학교)*</td></tr>
<tr><td>주요 내용</td><td colspan="2">주요 용어: 은둔고립, 은둔청년, 고립청년, 유튜브, 자기노출, 디지털 사회복지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은둔·고립 청년은 사회와의 관계를 단절한 채 고립된 생활을 이어가지만, 최근 일부는 유튜브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어떤 이유로 자신을 노출하고, 이를 통해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지 탐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유튜브에 스스로 삶을 기록한 은둔·고립 청년들의 채널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유튜브는 단순한 영상 플랫폼을 넘어, 은둔·고립 청년에게 정서적 안전지대이자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장으로 작용했다. 자기서사와 댓글 상호작용을 통해 이들은 자신을 수용하고, 타인과의 느슨한 연결 속에서 점진적인 회복을 경험했다. 연구는 이러한 변화를 '은둔·고립 청년의 상처 회복 여정: 디지털 세계에서 다시 연결되다'로 개념화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은둔·고립 청년의 회복을 위해서는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공간을 활용한 사회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 온라인 관계 맺기가 자립과 사회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 록 디지털 기반 상담·자조모임·커뮤니티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혐오발언 대응 등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전한 참여 환경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td></tr>
<tr><td>6</td><td>국가에 의해 은폐된 삶: 특수임무수행자의 사회 복귀와 제도적 배제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td><td>고현종(성균관대학교)
강준혁(을지대학교)*</td></tr>
<tr><td>주요 내용</td><td colspan="2">주요 용어: 특수임무수행자, 사회 복귀, 트라우마, 질적 사례연구, 보훈 정책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국가의 비밀 임무를 수행했지만, 그 존재가 오랫동안 '은폐'되었던 특수임무수행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이 겪는 개인적 상처와 제도적 배제의 구조적 문제를 당사자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직접 분석하고, 이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찾고자 한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들은 전역 후에도 기밀 유지 스트레스, 정신적·육체 적 고통, 사회적 고립 등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었다. 특히 국가의 '은폐'가 개인의 상처와 제도 적 '배제'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확인했으며, 현재의 보훈제도가 이들의 트라우마를 회복시키기에 역부족임을 밝혔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특수임무수행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보훈 정책 패러다임을</td></tr>
</table>

순서	논문제목	저자 (* : 교신저자)
	'경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전문 상담 체계를 도입하고, 훈련 후유증을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하며,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7	자기효능감 결여가 건강 신념과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에 미치는 영향 (미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건강 신념의 매개효과	손은정(덕성여자대학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대학생, 자기효능감 결여, 건강신념,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최근 청년층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이 낮고, 대학생은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집단임에도 예방행동이 부족하다. 기존 연구는 건강신념요인의 단순한 영향만을 다루었고, 자기효능감의 결여가 선행되었을 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자기효능감 결여가 건강신념을 매개로 백신 접종행위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자기효능감 결여는 인지된 장애를 높여 백신접종 가능성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효능감의 결여는 인지된 이득을 매개로 하여 백신접종을 저하하는 과정 또한 확인되었다. 따라서 단순 정보 제공보다는 자기효능감 향상을 중심으로 한 심리·행 동 개입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대학 보건센터와 지역사회는 맞춤형 상담, 집단교육, 동료 지지 프로그램을 통해 효능감을 강화해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표성이 강화된 표본을 기반으로, 다차원적 자기효능감 측정을 통해 인과적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8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가능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배호중(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인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남성(남편)의 육아휴직 활용가능성, 출산 이행, 한국노동패널(KLIPS), 맞벌이 가구, 생존분석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돌봄 주체 확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성평등 측면에서의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에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가능성과 출산 이행 간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향후 저출산 대응 측면에서의 남성 육아휴직의 실질적 사용 확대를 도모하는 기초 자료를 생산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순서	논문제목	저자 (* : 교신저자)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생존분석모형을 적용한 결과,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가능성 변수는 유자녀 상태로의 이행에 있어 통계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맞벌이 여부를 고려 한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가능성 상호작용 변수는 첫 자녀 출산 이행속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특히 남편의 육아휴직에 따른 자녀 출산 이후 육아에 대한 부담의 완화 가능성이 결과적으로 출산 결정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남편의 육아휴직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 및 기업 지원 정책 방향이 질적, 양적으로 지속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9	근로장애인의 직무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허즈버그의 위생동기 이론을 중심으로-	임동혁(청주대학교) 장은하(청주대학교) 홍석호(청주대학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근로장애인, 직무만족도, 위생-동기 요인, 삶의 만족도, 회복탄력성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근로장애인의 고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가 낮은 문제를 인식하고,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허즈버그의 위생동기 이론을 적용하여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 요인을 확인하고, 근로장애인의 일자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심리·사회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근로장애인의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역시 유의미하게 향상됨을 확인하였으며, 이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긍정적인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즉, 직무만족이 회복탄력성을 강화시키고, 강화된 회복탄력성이 최종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가 입증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단순히 고용의 양적 확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근로장애인이 직무에서 성취감과 의미를 찾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직무의 질적 개선과 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장애인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회복탄력성 강화 프로그램 등 심리·사회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 환경과 심리적 안정을 모두 충족하는 통합적 고용복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10	청소년 도박 정책 담론 분석: WPR(What's the Problem Represented to be?) 접근을 중심으로	정혜지(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임솔(광운대학교)*

순서	논문제목	저자 (* : 교신저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청소년 도박, WPR, 문제화, 낙인, 공중보건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이 연구는 청소년 도박문제가 정책, 언론, 학술담론에서 주로 불법행위 단속과 처벌 중심으로 다루어지면서 예방과 치유, 청소년 주체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2007년부터 2025년까지의 청소년 도박 관련 법령 및 정책문서, 언론기사, 학술논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청소년 도박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화되어 왔는지를 담론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분석 결과, 공중보건모델의 예방·치유 관점과 규제 관점 간 불균형적 담론이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도박은 주로 불법 행위 영역의 관리·통제 대상으로 표상되었으며, 그 전제에는 청소년 개인의 책임과 규제 중심의 통제적 관점이 작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예방·치유 관점과,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는 주변화되었고, 청소년은 정책 형성 주체가 아니라 지도·교정의 대상으로 재현되어 낙인을 강화하는 담론 구조가 드러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청소년 도박을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공중보건문제로 인식하고, 예방·치유·규제 관점을 균형감 있게 재구성하는 정책적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처 간 협력체계와 청소년 참여 기반의 정책 설계를 제도화해, 청소년을 보호와 통제의 대상이 아닌 예방과 회복의 주체로 위치시키는 담론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1	서울시 자살사망률의 시계열 및 공간적 분포 변화, 2000-2023	최민재(맥길대학교) 이요한(고려대학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자살, 자살예방, 공중보건, 역학연구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자살사망의 기술역학 연구에서 시계열 및 공간적 분포변화를 함께 보는 것은 자살사망의 현상의 규모와 양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 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지난 20여 년간 자살사망률의 시계열적 추이와 공간적 분포변화를 분석 하여 서울시 자살사망의 전반적 양상을 기술하고자 한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최근 서울시 자살사망률은 여성과 청소년 및 청년층에서 증가가 나타났다. 자살수단은 목맴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중독, 가스중독, 추락 등 다른 주요 수단도 주요하게 나타났으며 그 양상은 시기별로 변화하였다. 자치구별 자살률은 대체로 서울시 전체 추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나, 일부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자살률이 지속되거나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여성, 청소년 및 청년층에서 자살률 증가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순서	논문제목	저자 (* : 교신저자)
	대응이 요구된다. 이에 자살률 변화의 기저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한 효과적인 정책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12	웰다잉에 대한 태도 예측 모델링 연구: 머신러닝 분석을 기반으로	오종민(이화여자대학교) 최소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지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웰다잉, 호스피스, 연명의료, 생애 말기 돌봄, 예측모델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본 연구는 국내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응답자의 다수는 본인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이 있었지만, 가족과 생애 말기 상황, 치료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중단 제도에 대한 인식은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 의향을 결정하는 주된 이유로는 비용에 대한 고민, 죽음에 대한 인식 등이 있었다. 특히, 죽음을 둘러싼 가치관은 웰다잉 제도 이용 의향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웰다잉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 및 생애 말기 돌봄 방향에 대해서 가족·의료진과 사전에 논의하는 과정의 중요성과 호스피스·연명의료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13	욕구 기반 예산 활용의 실천 가능성 검토: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의적용을 중심으로	이한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은경(단국대학교)* 조휘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개인예산제, 개별유연화, 자기주도지원, 모의적용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2023년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의 적용 사업이 목표한 대로 개별유연화된 지원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었는지, 즉 참여자의 개별화된 욕구를 충족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기능했는지를 파악하고, 욕구 사정과 계획 수립 방법, 제도 설계의 보완점을 파악하고자 수행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참여자는 다양한 영역에서 욕구를 표현하였으나, 예산 편성은 신체건강, 일상생활, 주거 영역에 집중되었고, 지출은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영역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	

순서	논문제목	저자 (* : 교신저자)
	났다. 욕구와 예산 편성, 지출 간 불일치는 개인예산의 용도 제한, 욕구가 서비스 구매로 충족되지 않는 경우, 제한된 예산 규모, 참여자의 개인 사정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첫째, 개인예산의 용도 범위를 확대하고 취지에 맞는 제한품목에 관한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둘째, 이용계획 서식을 보완하여 참여자의 궁극적 바람과 선호를 파악하고, 잠재된 욕구를 파악해야 한다. 셋째, '구매' 방식으로 충족할 수 없는 욕구에 대한 지원과 자원 연계가 가능한 숙련된 사례관리자의 육성과 배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는 자립, 사회참여, 웰빙 등 개인예산제의 궁극적 목표와 관련한 제도의 성과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14	저소득 당뇨병환자에 대한 의료사회복지사의 실천 경험	장수미(청주대학교)* 남은지(인천대학교) 이수지(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저소득 당뇨병환자, 의료사회복지사, 실천 경험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당뇨병은 일상생활에서 자기관리가 필수적이지 만 다양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저소득 당뇨병환자의 자기관리는 쉽지 않으므로 합병증 이 초래되고 삶의 질을 저해한다. 본 연구는 이에 주목하여 저소득 당뇨병환자에게 개입하는 의료사회복지사의 실천 경험을 탐색하고, 이에 기반하여 저소득 당뇨병환자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의료사회복지사들은 당뇨병 이외에 합병증, 가족 관계, 돌봄, 일자리, 주거, 낮은 동기, 정신건강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갖는 저소득 당뇨병환자에게 상담과 교육, 경제적 지원, 동기 강화를 위한 개입 등을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뇨병환자를 위한 사회 복지서비스의 부족, 수가체계의 부재, 의료사회복지사 인력 및 전문역량 부족, 지역사회 연계의 어려움 등의 장벽을 마주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의료사회복지사의 저소득 당뇨병환자 자기관리 지원을 위한 실천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당뇨병은 병원뿐만 아 니라 지역사회에서 관리되어야 할 만성질환으로, 저소득 당뇨병환자를 만나는 지역사회 공공과 민간기관 사회복지사들의 당뇨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의료사회복지사와의 협업 등을 위한 준비와 지원이 요구된다.	
15	둥지 없는 청년, 먹이 없는 청년?: 거주 지역에 따른 청년의 결혼 의향 분석	이진철(연세대학교)
주요	**주요 용어:** 결혼 의향, 지역 격차, 일자리, 주거, 청년	

순서	논문제목	저자 (* : 교신저자)
내용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서울은 둥지(주거)가 없고 지방은 먹이(일자리)가 없다'는 비유와 같이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결혼에 대한 핵심 자원의 접근 가능성과 자원의 효과가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유가 타당한지 거주지역에 따른 주거, 일자리 자원과 결혼 의향 간의 관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경로 분석 결과 서울에서는 결혼 의향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임차 형태 둥지를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기는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 지역의 자원 확보 어려움에 따라 주거, 일자리가 결혼 의향에 미치는 총효과의 양상도 상이하게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결혼 의향에 있어 주거와 일자리 자원의 중요성은 여전하나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지원 정책과 구조적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6	아동학대 개념 재구성과 정서적 방임의 제도적 구조화에 대한 논의	이세원(국립강릉원주대학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아동학대, 아동학대와 방임, 아동 부당대우, 방임, 정서적 방임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우리나라의 아동학대는 주로 때리거나 폭언을 하는 등 눈에 보이는 행동을 중심으로 이해되어왔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대우 전체를 아동학대로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우리나라는 아동학대를 폭력 중심으로 좁게 규정하면서 방임을 부차 적으로 다루고 있었고, 그로 인해 정서적 방임이 통계와 행정, 현장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빠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정서적 방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속적인 무관심이나 정서적 반응의 부재가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아동학대를 방임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재구성하고, 그 안에서 정서적 방임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놓쳐왔던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공통된 기준에 따른 개입이 가능하도록 법과 실무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17	경제적 요인이 청년세대의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인식 요인의 매개효과 분석: 서울시 청년의 한국사회 미래전망과 공정성 인식을 중심으로	안리라(고려대학교)

순서	논문제목	저자 (* : 교신저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출산의사, 월평균 소득, 부모 경제수준, 한국사회 미래전망, 공정성 인식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청년세대의 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사회 미래전망, 공정성 인식 등 사회인식 요인에 주목했다. 소득, 부모의 경제수준 등 경제적 요인이 어떤 사회심리적 메커니즘을 거쳐 출산을 계획하도록 하는지 분석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한국사회 미래전망과 공정성 인식은 청년세대의 출산의사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쳤다. 즉 한국사회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한국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할수록 출산의사를 가질 개연성이 높았다. 그리고 한국사회 미래전망 및 공정성 인식은 청년 개인의 월평균 소득 및 부모의 경제수준이 청년세대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저출생 대응정책이 경제적 지원 중심에 서 나아가 사회시스템에 대한 신뢰회복 및 미래안정성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 될 필요가 있다. 청년세대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동시에 정책과정의 투명성 제고, 분배의 공정성 회복, 사회안전망 구축 등 포괄적 관점의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18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제한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황재민(전북대학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 일상생활제한, 우울, 자아존중감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지체장애인의 대부분은 성인기에 후천적 요인으로 인하여 중도 지체장 애인이 된다. 그러나 현재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제한으로 인한 심리적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개인의 심리 자원 중 핵심 요인인 자아존중감 이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제한이 우울로 영향을 끼치는 과정에서 어떠한 매개효과 를 하는지 분석하여, 우울을 낮추고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개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2년 장애인 삶 패널조사'에 참여한 만 20세 이후 중도 지체장애인이 된 644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일상생활제한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우울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은 일상생활제한을 인식함에 따라 우울로 이어질 때, 자아존중감이 핵심적인 매개역할을 수행함을 보여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의 긍정적인 심리 건강과 성공적인 재활을 위해, 먼저 장애 발생 이전의 경험을 반영한 맞춤형 자아존중감 및 우울 측정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순서	논문제목	저자 (* : 교신저자)
	이를 통한 명확한 진단은 직무 전환/재설계 특화 프로그램 개발과 일자리 연계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우울 감소를 위해 경험 선배 멘토링 기반의 자아존중감 재구성 프로그램 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은 전국 단위로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19	Scale of Aging in Place (SAIP): Aging in Place 경험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이경재(연세대학교) 남석인(연세대학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노인, Aging in Place, 지역사회 지속거주, 척도 개발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본 연구는 Aging in Place(AIP)를 정책적 지향으로 다루어 온 기존 논의가 노인의 실제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노인이 익숙한 주거 환경과 지역사회에서 나이 들어가는 경험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인 Scale of Aging in Place(SAIP)를 개발하였다. SAIP는 AIP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촉진하고, 관련 정책의 효과성 평가를 구체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본 연구는 노인의 지속거주 경험이 자율감, 유대감, 자아연속감, 편의 안전감과 같은 긍정적 요소와 체념이라는 부정적 요소가 교차하는 복합적인 삶의 양식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자아연속감은 장소에 축적된 기억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이어지는 삶'의 감각이 AIP 경험을 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향후 연구에서는 우선, SAIP를 다양한 실증 자료에 적용하여 척도의 설명력과 외적 타당도를 확장함으로써, 정책적 판단과 실천적 개입을 위한 근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노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검증 과정을 통해 문항의 명료성과 문화적 일반성을 제고함으로써 척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20	디지털 기술 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경험과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이은영(동국대학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디지털 기술 돌봄 서비스, 사회복지사, 노인 돌봄, IoT, AI 돌봄로봇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노인을 위한 디지털 기술 돌봄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의 경험과 인식, 그리고 기술 도입 이후 실천 현장과 업무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 는 디지털 기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서비스의 효과와 한계점,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본 연구 결과, 디지털 돌봄 기술의 도입은 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 을	

순서	논문제목	저자 (* : 교신저자)
	높이는 동시에 사회복지사들에게 새로운 부담과 과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돌봄 기술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기기의 오류와 기기에 대한 노인들의 낮은 수용성은 돌봄의 책임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기술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우려는 현장에서 중요한 윤리적 과제로 제기되었다. 아울러 제도적 기준과 관리 체계의 미비는 서비스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디지털 돌봄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윤리 교육과 명확한 실천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업무시간 외 기기 모니터링과 같은 추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충 및 운영체계 지원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21	토픽모델링을 이용한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원인 분석: 수도권-비수도권 의료인력 종사자 직무 인식 비교분석	박상균(가천대학교) 임유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의료인력 수도권 집중, 병원 종사자 리뷰,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며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와 건강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기존 연구는 의사 수 등 수치 중심 분석에 머물러 의료인의 실제 지역 선택 요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병원 종사자 직무 리뷰 데이터를 분석하여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수도권 근무 선호요인과 지방근무 기피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본 연구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이 단순한 지역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병원 간 보상체계·조직문화·업무 구조 등 근무환경의 질적 격차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함을 직무 리뷰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향후 지방 의료기관 차원에서는 교대근무·보상체계 개선과 조직문 화 개편을 병행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지역 정착 유인과 수련환경 개선을 포함한 구조적 정책 개입을 통해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22	사기 범죄 피해 경험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배우자 존재의 조절 효과	이진영(고려대학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삶의 만족도, 사기 범죄, 사기 범죄 피해, 배우자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사기 범죄는 개인의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	

순서	논문제목	저자 (* : 교신저자)
	이지만 피해에 의한 정서적, 관계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특히 배우자와 같은 가까운 사회적 지지망이 사기 피해 이후 피해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친 역할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경험과 배우자의 존재가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사기 피해 경험은 삶의 만족도를 낮추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부정적인 영향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의 존재가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사기 피해자의 삶의 만족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피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보상 체계 및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단위의 경제적·심리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사기 피해의 유형과 심각도, 피해 금액 및 관계 만족도와 같은 세부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여 사기 피해 이후 심리적·관계적 변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3	개인의 위험감수성향과 MBTI가 실손형과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보유에 미치는 영향	이혜재(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정영일(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황인욱(서울연구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위험성향, MBTI, 민간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 정액형보험, 보험소비자행태조사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동기는 단순하지 않다.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이 보험 가입을 유도하거나 성격 특성이 보험 선택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 연구는 직접문항과 간접문항(복권계임, 가상자산 투자)으로 측정한 위험감수 성향과 MBTI 성격 유형이 실손형과 정액형 보험 선택에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고자 수행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보험 유형에 따라 위험감수성향과 성격 특질이 다르게 작용함을 확인 하였다. 복권게임 점수와 가상자산 투자 같은 행동 기반 위험감수 지표는 실손형 보험 가입 가능성을 높였고, 정액형 보험과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MBTI 성격 요인에서는 감각형(S)이 실손형 보험의 보유 가능성을 높였고, 외향형(E)이 정액형 보험 보유 가능성을 높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이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위험 성향과 성격 유형에 따라 상황적 프레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를 함께 고려하는 실험·종단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에서 포함하지 못한 건강상태와 보장내용 등의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정교한 데이터 구축이 요구된다. 이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MBTI 성격 요소와 위험성향을 고려하여 정보 접근 격차를 줄이고, 필요에 따라 맞춤형 소비자 보호와 정보 제공 전략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순서	논문제목	저자 (* : 교신저자)
24	1인가구 청년의 주거환경 및 식품미보장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소득수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가현(성균관대학교) 한창근(성균관대학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1인가구, 청년, 주거환경, 식품미보장, 외로움, 조절된 매개효과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주거환경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기에 대한 해석은 물론 사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틀로 작용한다. 하지만 1인가구 청년들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의 열악한 공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며 살아간다. 본 연구는 현재의 1인가구 청년들이 경험하는 일상적 어려움은 어디일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따라서 열악한 주거환경과 그리고 식생활에 집중했으며, 이로 인해 나타나는 정서적 어려움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본 연구는 1인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 외로움, 그리고 식품미충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주거환경이 열악할수록 청년의 고립감, 외로움, 사회와의 단절 등을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식품미충족은 주거환경과 외로움 사이의 관계를 의미있게 연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저소득층에서 이러한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주거환경은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식생활의 어려움과 관련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외로움을 초래한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1인가구가 경험하는 식품미충족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 전체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로 주거, 영양학적 접근과 함께 사회보장적 시각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25	경제적 노후 준비 여부 및 방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COVID-19 팬데믹을 활용한 이중차분법 분석	김대환(동아대학교) 정중영(동의대학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연금, 삶의 만족도, 준실험설계, 이중차분법, 인구고령화 **이 연구는 왜 했을까?** 한국은 소득수준이 높지만 노후빈곤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삶의 만족도가 낮은 대표적인 나라다. 본 연구는 노후준비의 충분성뿐만 아니라 노후준비의 방법이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어떤 방법으로든 노후준비를 충실히 한 고령자는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하지만, COVID-19과 같은 위기까지 고려할 때 자산 축적을 통한 노후준비보다	

순서	논문제목	저자 (* : 교신저자)
	는 사망 시까지 안정적인 소득흐름을 통한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가 높이는 확실한 방법이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삶의 만족도를 위해 노후준비를 충분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었을 때부터 연금제도를 통해 사망 시까지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후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공사연금을 통해 미연에 노후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세제적 지원이 중요하다.	
26	청소년기 가구빈곤 경험이 청년기 고용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졸업 후 초기 임금근로자의 안정적 일자리 취업을 중심으로	현옥주(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금선(서울연구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청소년 빈곤, 청년기, 안정적 일자리, 노동 이행, 패널로짓분석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고용 불안정은 청년층 대부분이 경험하는 보편적 위험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 연구는 생애과정 관점에서 청년기의 고용불안정이 청소년기 빈곤 경험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년기 노동 성과가 개인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불평등 구조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15세부터 18세 사이에 경험한 가구 빈곤이 청년기(19~34세)에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청소년기에 빈곤을 경험한 청년은 그렇지 않은 청년보다 졸업 후 안정적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빈곤 경험 횟수에 따른 차등적 효과는 부분적으로만 확인되었으나, 청소년기의 낮은 가구소득이 인적자본 축적에 영향을 미치고 이후 노동시장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빈곤가구의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소득지원과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강화 등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일자리의 질을 높여 노동시장 불평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27	아동 및 청소년의 상용치료원의 보유 여부와 이상체중과의 관계	김수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종남(원광대학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상용치료원, 체중관리, 아동, 청소년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아동·청소년기의 체중관리는 건강한 성장과 성인기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를 일차의료 지속성의 지표로 활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저체중 및 과체중·비만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순서	논문제목	저자 (* : 교신저자)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상용치료원을 보유한 아동·청소년은 저체중이나 과체중·비만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저체중보다는 과체중과 비만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체중 상태는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뿐 아니라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구소득, 거주지역 등 가정과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도 함께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일부 소득계층에서는 과체중과 비만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관찰되어, 아 동·청소년의 체중 문제가 개인의 식습관이나 선택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아동·청소년의 체중관리는 단기적 개입이 아닌 성장과정 전반에 걸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상용치료원을 기반으로 정기적인 건강 상담과 체중 관리가 요구되며, 이와 더불어 영양·신체활동·정신건강 서비스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8	국내 포토보이스 연구의 공론화 구조와 실천 양상에 대한 스코핑 리뷰	백지연(국립부경대학교) 허원빈(국립부경대학교)* 오영삼(국립부경대학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포토보이스, 공론화, 스코핑리뷰, 참여적 연구, 지역사회 참여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본 연구는 국내 포토보이스 연구에서 공론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졌는지 동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포토보이스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 목소리가 실제 사회 변화로 이어졌는지도 함께 분석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연구 결과, 국내 포토보이스는 주로 청소년, 장애인, 지역 주민, 노인 등 자기 의견을 드러내기 어려운 집단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참여자는 사진을 통해 문제를 정의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전시회·정책 제안·지역 기관 협력 등 실제 실행 단계로 이어지는 사례를 확인했다. 포토보이스를 통해 참여자는 단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사회 변화를 만드는 주체로 기능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포토보이스 활동이 행사나 발표에서 끝나지 않도록, 지역 정책과 실천 활동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더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참여자 의견이 일시적 참여가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속해서 힘을 발휘하도록 체계를 구축함이 중요하다.	
29	국내 메타버스 상담의 연구 동향과 효과성	맹신실(단국대학교) 전혜성(단국대학교)*
주요	**주요 용어:** 메타버스, 메타버스 상담, 연구동향, 효과성	

순서	논문제목	저자 (* : 교신저자)
내용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상담 사례 증가와 기술 발전으로 현실적 가상 경험이 가능한 메타버스 상담이 새로운 비대면 상담 방식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이 연구는 메타버스 상담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국내 메타버스 상담 연구 8편을 대상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메타버스 상담의 동향과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메타버스 상담은 다양한 연령대와 상담 주제에서 대면 상담과 비슷한 효과를 보였으며, 아바타를 통한 익명성과 몰입감이 상담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상담 프로그램을 메타버스 상담 환경에 적용하여도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청소년뿐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에게 메타버스 상담을 적용하고, 장기적으로 상담 효과가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다양한 임상 실천과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생성형 AI 등의 최신 기술과 통합하여 접근성 및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메타버스 특성을 반영한 평가 도구, 윤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게재된 논문은 『보건사회연구』 웹사이트(https://www.kihasa.re.kr/hswr/)에서 전문을 바로 볼 수 있으며, 추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